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1
NOV 13 2019

발간년월 2019년 11월 13일 (통권 제11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동부, 카자흐스탄과 연결 도로 보수 예정
- 우크라이나, 에너지 사업에 있어 오데사 지역 항만 시설의 역할 증대...풍력발전기 부품에 이어 리비아 산 원유도 수입
- 러시아 알타이 지방 내륙수운을 통한 화물량 2배 증가
- 러시아 극동 'FEB eoe & Packaging'사, 통조림 부품 생산
- 중국 알리바바, 중국-러시아 항공화물 직항 서비스 실시

주요 통계

-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별 규모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주요 동향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동부, 카자흐스탄과 연결 도로 보수 예정

■ 키르기스스탄 동부의 툽(Tyup)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케겐(Kegen)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오는 2020년에 착공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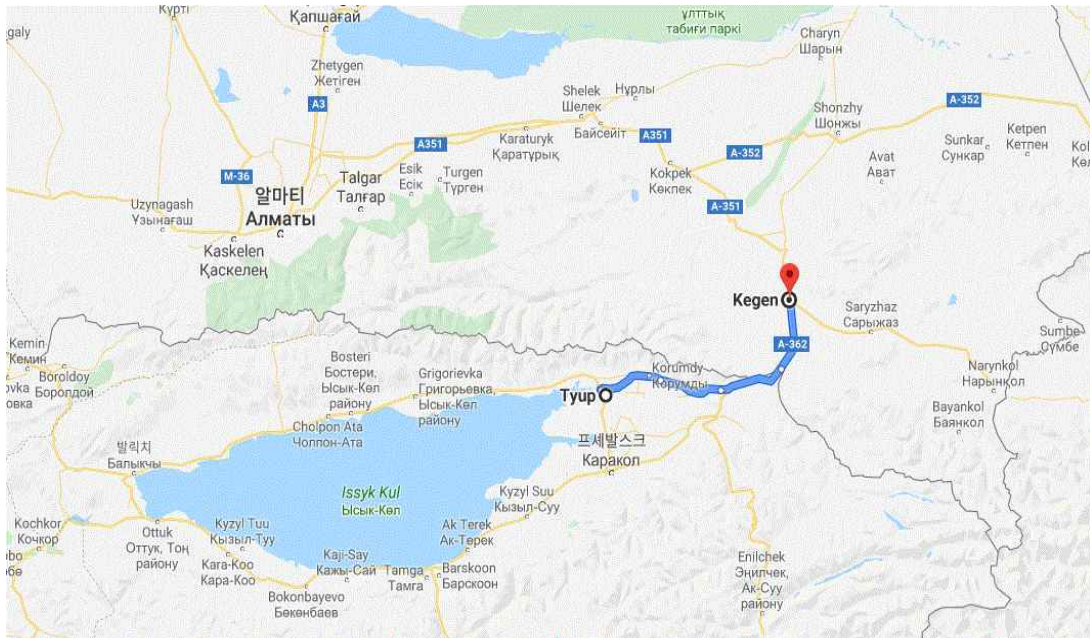
-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이식쿨(Issyk-Kul)의 동쪽에 위치한 툽 지역은 키르기스스탄 간선도로 A362번 국도와 A363번 국도가 만나는 곳임
- A362번 국도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국경을 지나 카자흐스탄으로 연결되는 국제도로로,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소재한 케겐 지역까지 도로 연장은 약 105km임
- 이 국제도로는 2008년에 개통되었지만, 2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도로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국 국경 인근 39km 구간과 15km 구간에 대해 내년부터 보수를 시작할 예정임

■ 이번 도로 보수 공사는 키르기스스탄 관광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위치하여 국경으로 나뉘는 카르카라(Karkara) 협곡 지역 역시 역내 주요 관광지 중 하나임
- 특히 카자흐스탄 남동부 지역에서는 A362번 도로를 경유해야 이식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고속화 공사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키르기스스탄 교통부는 이번 도로 정비와 함께 총 5곳의 관광 서비스 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식쿨 지역의 관광산업 잠재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이번 도로 보수에 대한 결정은 키르기스스탄 정부 협의회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이며, 세계은행(WB)의 지원을 받을 예정임
- 당국은 세계은행에서 5,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과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했고, 도로 보수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많은 부분이 투입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 재정 계약이 이행되었으며, 10월 14일에 키르기스스탄 총리실에서 최종 결의안이 통과되었음

그림 1. 톱 - 케겐 구간 A362번 국제 도로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24.kg/> (2019.11.09. 검색)
- b) <https://economist.kg/> (2019.11.09. 검색)

우크라이나, 에너지 사업에 있어 오데사 지역 항만 시설의 역할 증대...

풍력발전기 부품에 이어 리비아 산 원유도 수입

■ 우크라이나 항만공사 오데사 지사는 초르노모르스크(Chornomorsk)항에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발전기 부품 하역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 풍력발전기 부품은 <블라디슬라브 오르칸(Wladyslaw Orkan)> 호를 통해 초르노모르스크항 5번 및 6번 부두에서 하역되었으며, 총 중량은 871톤이었음. 산업용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블레이드 부품은 각각 길이 75m, 무게 27톤이며, 총 18개였음
- 지난 해 초르노모르스크항에 하역된 풍력발전기 부품들은 오데사 주 오비디오폴 군(Ovidiopol)에 위치한 산업용 풍력발전소 건설에 배정되었으나, 올해 하역된 부품들은 동남부의 미콜라이우 주(Mykolaiv oblast)와 도네츠크 주(Donetsk Oblast)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투입될 예정임. 하역작업은 초르노모르스크 항만 측과 선사인 <트랜스플랜(Transplan)>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부품은 특수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1개월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지역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투자한 지속가능에너지 대여설비(Ukrainian Sustainable Energy Lending Facility-3, USELF-III)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오데사 항에는 리비아 산 원유가 최초로 유조선을 통해 11월 11일 우크라이나로 수입되었음

- 리비아산 원유는 총 81,282톤으로 리비아 아즈자위야(az-Zawiya)에서 유조선 <프로메테우스 에너지(Prometheus Energy)> 호에 선적되어 오데사 항에 입항하였음
- 바체슬라프 라브레뉴크(V'yacheslav Lavrenyuk) 오데사항 항만통제실 부실장은 아침 해무로 인해 도선 및 접안 작업이 다소 지연된 바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이번 달에 아제르바이잔 산 석유를 선적한 유조선도 입항할 계획임을 밝힘
- 우크라이나 항만공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 간 우크라이나의 항만 시설을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브라질, 베네수엘라, 미국 산 석유가 수입되고 제3국을 거친 바 있으며, 리비아는 10번째 대 우크라이나 석유 수출국이 되었음
-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풍력발전 사업에서의 유럽 자본 유치와 석유 수입선 다변화 작업에서 서부 지역 항만의 중요성이 엿보이며,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 초르노모르스크항에서 하역 중인 풍력발전기 부품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a%d0%be%d0%bd%d1%82%d0%b5%d0%b9%d0%bd%d0%b5%d1%80%d0%bd%d0%b8%d0%b9-%d1%82%d0%b5%d1%80%d0%bc%d1%96%d0%bd%d0%b0%d0%bb-%d0%bf%d0%be%d1%80%d1%83-%d1%87%d0%be%d1%80%d0%bd%d0%be%d0%bc%d0%be/2019/11/11/> (2019.11.11.검색)
- b)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2-%d0%be%d0%b4%d0%b5%d1%81%d1%8c%d0%ba%d0%be%d0%bc%d1%83-%d0%bf%d0%be%d1%80%d1%82%d1%83-%d0%b2%d0%b8%d0%b2%d0%b0%d0%bd%d1%82%d0%b0%d0%b6%d0%b5%d0%bd%d0%b0-%d0%bf%d0%b5%d1%80%d1%88%d0%b0-%d0%bf/2019/11/12/> (2019.11.12.검색)

러시아 알타이 지방 내륙수운을 통한 화물량 2배 증가

■ 올해 알타이 지방 내륙수운 운송량은 100만 톤까지 예상되나, 러시아 전체 내륙수운 현황은 열악한 상황임

- 알타이 지방은 5년째 내륙수운 운송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수운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이 2배 이상 증가했음. 그러나 과거 약 6백만 톤의 화물(자갈, 모래, 석탄 및 기타 제품)을 운송했던 실적에 비하면 현재의 화물 운송량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내륙수운은 대부분 쇠퇴했음.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내륙수로로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내륙수운 운송량은 모든 화물의 1.5%이며, 수로의 65%는 시베리아에 분포함. 알타이 지방에서의 내륙수운 운송량은 지역 전체의 약 5% 이상으로 추정됨
- 내륙수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수단 중 하나임. 운송로 유지·보수는 다른 운송 수단보다 6~7배 저렴하고, 취급 화물량은 철도보다 2.5배 많음. 드미트리 코로빈 알타이 지방 교통부 차관에 따르면, 화물 1톤 운송 기준으로 내륙 수운은 도로 운송보다 안정성이 14배 높고, 에너지 절약 효과는 34배에 이름
- 알타이 지방 내륙수운 화물 운송량 6백만 톤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25년 동안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내륙수운 사업은 쇠퇴함.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수로 유지에 대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음

■ 알타이 지방의 민관협력 내륙수운 사업 효과

- 2014년, 알타이 지방 내륙수로의 유지·관리에 연방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지방 정부는 수로 선박 보전을 위해 민간 기업의 수운 사업 참여와 민관협력 사업들을 제안함. 이에 대해 연방 예산국의 바르나울 지국장 알렉산더 추프린이 언급함
- 알타이 지방정부와 오비 수운 관리국, 수운 및 개발 분야 지역 기업들 간의 수로 선박사업에 관한 협력 계약은 유효 기간이 2015년에서부터 2018년까지며, 지역 수로 준설작업 강화, 수로 교정, 운항에 연간 최대 6천만 루블의 투자를 유치했음
- 수로 사업 투자는 연방 정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4,500만 루블이며, 알타이 지방으로는 이 중 1천만 ~ 1,500만 루블이 할당됨
- 총 3년 간, 모든 투자자들은 수운 개발을 위해 1억8천만 루블을 사용함. 이 자금은 오비 강 카툰-바르나울-캄냐 나 오비 구간의 수심 유지에 사용됨. 결과적으로 화물 운송량은 두 배가 늘었고, 트럭 12만 대분의 화물량이 줄어 도로의 과적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

- 2019년에 이 계약은 3년 더 연장됨. 비(Внй)수로 항만의 책임자 빅토르 프란크에 따르면, 재정의 강화는 수로 선박 보전과 운항 가능 기간 연장, 항만 경제 회복을 가져옴. 준설 작업을 통해 화물량이 늘어났고, 효율적 운송과 함께 운항 가능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남
- 화물 및 여객, 기술 선박(바다와 하천의 공사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배)의 현대화는 수운 관계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임. 또한 내륙수운 화물량 증가를 위해서 예전 환적 지점들을 복원하고 새롭게 건설해야 함
- 현재 바르나울에는 오비강에 대형 하역장이 한 개 있음. 내륙 수운 운송 화물의 범위를 늘리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하천, 도로, 철도로 연계된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남가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neba95@naver.com)

참고자료

- a)<https://rg.ru/2019/10/24/reg-sibfo/v-altajskom-krae-v-dva-raza-velichili-gruzooborot-rechnogo-flota.html>(검색일: 2019. 10. 28)
- b)<https://news.rambler.ru/other/43043378-v-altajskom-krae-v-dva-raza-velichili-gruzooborot-rechnogo-flota/>(검색일: 2019. 10. 28)

러시아 극동 ‘FEB eoe & Packaging’사, 통조림 부품 생산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입주기업인 ‘FEB eoe&Packaging’사(이하 FEB사)는 독창적인 기술로 통조림 제품을 쉽게 개봉할 수 있게 ‘EOE’ 통조림 뚜껑을 생산함

- FEB사의 생산공장은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약 6,200만 루블로 설립되어 19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FEB사는 러시아 국내 및 해외에서 인정받은 독창적인 기술로 생산 자동화와 빠른 완제품 생산 속도로 1분당 500개의 제품을 생산함

■ FEB사는 우수리스크 임대토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자동화된 해외 생산라인을 설치함

- 또한 자유통관 절차를 통해 영구적인 관세자유지역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장비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어 약 2,000만 루블을 절약함
- FEB사 외에도 자유항 6개의 기업과 선도개발구역의 13개 기업이 자유통관 절차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혜택을 받음

■ FEB사가 우수리스크시를 선택한 이유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해주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및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임

- 이 외에도 연해주에 FEB사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통조림 생산 기업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FEB사의 주요 고객사는 ‘Preobrazhenskaya Baza Tralovogo Flota’ ‘Kurilskiy Bereg’, ‘Gidrostroy’사임

그림 3. FEB사 생산라인 및 EOE 제품



출처: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738/>(검색일: 2019년 11월 11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참고자료

a)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738/>(검색일: 2019년 11월 11일)

중국 알리바바, 중국-러시아 항공화물 직항 서비스 실시

■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는 러시아 전자상거래 구매자에게 빠르게 상품을 인도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항공화물 직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힘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며 연간 1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림
- 알리익스프레스(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홍콩 자회사이자 그 회사가 운영하는 B2C 전문 사이트) 러시아는 직항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중국에서 러시아로 상품 배달에 소요 되는 시간을 기존 50일에서 향후 10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알리바바의 카이냐오(Cainiao) 물류 사업자는 러시아우체국(Pochta Russia) 및 AviaStar-Tu에 7대의 화물 비행기를 임대함

- 이 화물기를 이용하여 모스크바, 예카테린 부르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로 매일 화물 비행기를 운항할 계획임

■ 카이냐오 인터네셔널(Cainiao International)의 자오 지안 부사장은 자사의 연례 온라인 쇼핑축제 기간 동안 모스크바, 리에 주, 리가, 쿠알라룸푸르 등 유럽 및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로 상품을 보내기 위해 전세 항공편을 100회 이상 운항할 것이라고 밝힘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참고자료

- a) <https://uk.reuters.com/article/us-alibaba-russia-flights/alibaba-russian-post-launch-china-russia-flights-to-cut-delivery-times-idUKKBN1XH1LX>(검색일: 2019년 11월 12일)
- b)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10/30/c_138515493.html(검색일: 2019년 11월 12일)



주요 통계



표 1.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27 (-1.3%)	6.67 (+0.2%)	17.94	-0.8%
북극해	2.96 (-1.1%)	6.11 (-4.7%)	9.09	-3.5%
발트해	9.42 (-0.2%)	11.19 (-1.3%)	20.61	-0.8%
아조프-흑해	9.91 (+1.2%)	14.7 (+1.0%)	124.6	+0.9%
카스피해	0.23 (+0.2%)	0.41 (-102.4%)	0.64	-0.3%
합계	33.78 (-0.2%)	39.08 (-0.6%)	72.87	-0.5%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33,031.1	66,762.5	328,401.1	64,743.2	4,629.9	2,019.3
광물 제품	1,685,237.5	94,904.4	1,650,965.7	13,786.7	34,271.8	81,117.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574,993.7	12,702.4	1,574,930.8	12,695.5	62.9	6.9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287.5	69,988.1	3,561.7	69,107.8	725.8	880.3
가죽원료, 모피 제품	18.7	2,563.4	10.1	2,544.3	8.7	19.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3,105.5	8,323.4	82,211.0	8,239.7	894.5	83.7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531.7	42,198.2	371.8	41,276.6	159.9	921.5
금속 및 금속 제품	39,630.0	72,877.2	39,514.2	68,755.9	115.8	4,121.2
기계류	138,901.6	402,907.0	137,767.2	401,049.5	1,134.5	1,857.5
기타	251,909.4	64,400.4	196,735.2	64,094.6	55,174.1	305.8
합계	2,536,652.9	824,924.3	2,439,537.9	733,598.2	97,115.0	91,326.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3	11,6	0	0	-	-	-	-	3	11.6	0	0
냉동어	113,120	1,424,705.9	275	38,321.5	319	466.3	-	-	113,438	1,425,172.2	275	38,321.5
연어류	23,274	185,700.4	-	-	0	0	-	-	23,274	185,732	-	-
넙치	737	17,760.0	-	-	-	-	-	-	737	17,760.0	-	-
가자미	741	11,984.5	-	-	-	-	-	-	741	11,984.5	-	-
가자미류	1,841	25,544.2	-	-	-	-	-	-	1,841	25,544.2	-	-
청어	8,721	55,873.8	-	-	299	374.7	-	-	9,020	56,248.5	-	-
대구	4,353	139,706.5	-	-	-	-	-	-	4,353	139,706.5	-	-
명태	60,583	737,243.3	-	-	-	-	-	-	60,583	737,243.3	-	-
농어	17	1,399.2	-	-	-	-	-	-	17	1,399.2	-	-
간, 곤이 (어란)	1,599	184,918.6	-	-	-	-	-	-	1,599	184,918.6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50	10,270.4	-	-	-	-	-	-	650	10,270.4	-	-
생선필렛, 어육	2,727	138,207.6	82	2,339.6	-	-	-	-	2,727	138,207.6	82	2,339.6
건어, 훈제, 염장, 어분	82	1,179.4	138	4,123.4	-	-	-	-	82	1,179.4	138	4,123.4

갑각류	5,027	659,148.5	73	1,570.2	-	-	-	-	5,027	659,148.5	73	1,570.2
계류	4,144	596,737.8	-	-	-	-	-	-	4,144	596,737.8	-	-
조개류	3,163	43,582.6	-	-	-	-	-	-	3,163	43,582.6	-	-
가리비류	322	9,087.2	-	-	-	-	-	-	322	9,087.2	-	-
오징어류, 문어류	2,283	15,056.9	56	1,864.4	-	-	-	-	2,283	15,056.9	56	1,864.4
수산무척추동물	5,143	16,972.0	-	-	0	0	-	-	5,143	16,972.0	-	-
해삼류	428	21,543.6	-	-	0	0	-	-	428	21,544.0	-	-
성게류	189	4,182.7	-	-	-	-	-	-	189	4,213.1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
- c) 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검색일: 2019년 10월 16일)